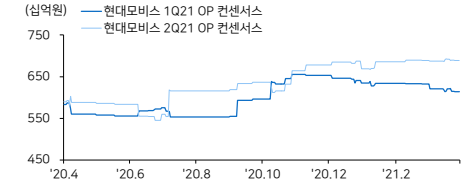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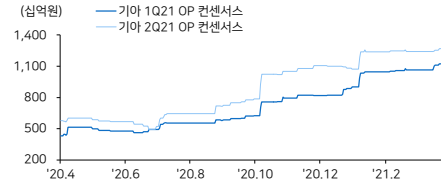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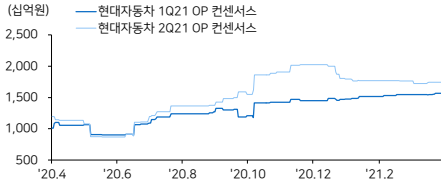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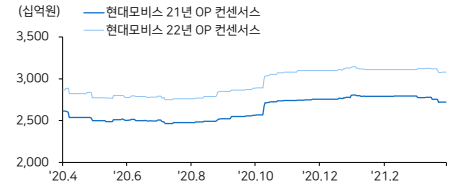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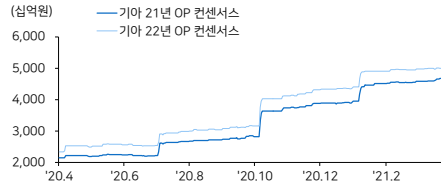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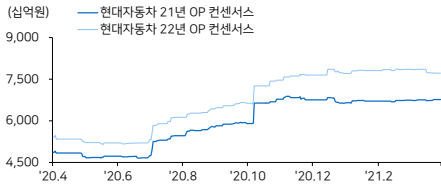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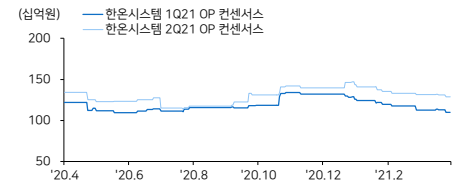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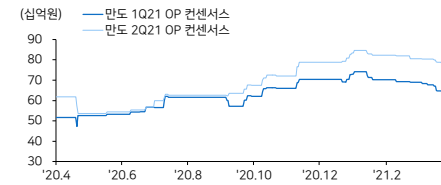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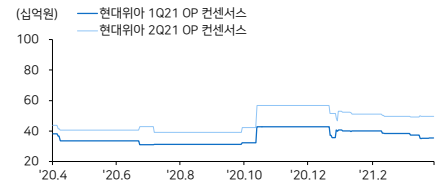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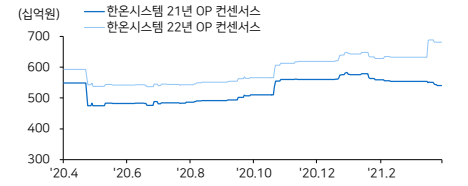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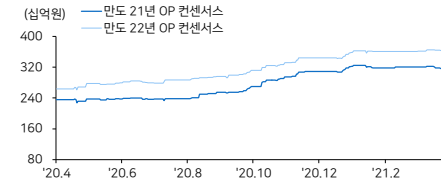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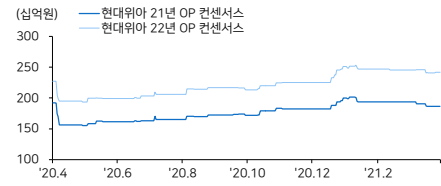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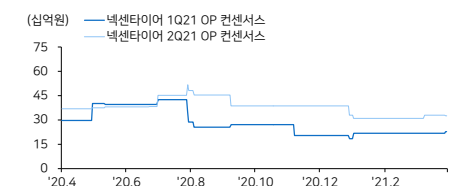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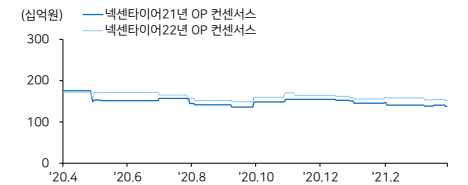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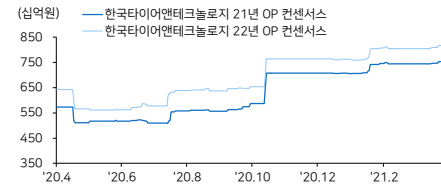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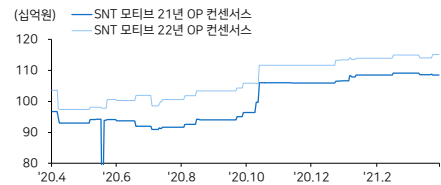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항공안전기술원과 도심항공교통 MOU체결 (뉴시스)

현대차는 항공안전기술원(KIAS)과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항공시스템(UAS), 항공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https://bit.ly/3awWYOL>

포드 & GM, 반도체부품 부족에 복기 공장 폐쇄 2주 연장 (파이낸셜뉴스)

WSJ에 따르면 포드는 차량용반도체 부품이 부족해 복기 공장 5곳의 가동중단을 연장할 계획임. 또한 GM과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들도 최근 반도체부품 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생산일정 변경을 감행. <https://bit.ly/3vh3UI1>

Biden pledges to slash greenhouse gas emissions in half by 2030 (CNBC)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에서 5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감축 목표는 전력 발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채워지며, 올해 말 제시될 예정이며, 이 목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의 공약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https://cnb.cx/32DCH5W>

중 사이핑, '플라잉 자동차'로 테슬라에 도전 (글로벌이코노믹)

상하이 모티오에서 사이핑은 플라잉 전기차 '하이텍(Heitech)'을 선보이며, 구 사장은 '미래의 플라잉카로 고안된 것이 하이텍'이라며 "플라잉 기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별도의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함. <https://bit.ly/32A1NT8>

K-배터리 동맹' 결실... 정의선 회장 인사역 '특목' (뉴데일리경제)

현대차·기아와 SK이노베이션은 '24년 양산을 목표로 HEV 배터리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현대차와 LG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계획 중. 또한 현대차그룹은 최근 삼성SDI와도 HEV 원통형 배터리 공동개발을 논의 중. <https://bit.ly/2Qo5Hfp>

포드 & GM, 조 바이든 美 대통령에게 CO2 대폭 감축 요구 (데일리카)

GM과 포드를 추측으로 하는 미국 내 400개 기업 회의는 기후변화 리더스 서밋에 참가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미국 내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2005년보다 최소 50% 이상 낮추도록 요구함. <https://bit.ly/3xfAEmu>

1Q 중 전기차 시장 332% ↑...테슬라 약진 속 3인방 초강세 (ZDNet Korea)

1Q21 중국의 BEV 판매량은 40만8,000대로, yoy +332.1% 증가함. Tesla는 전분기보다 4,000대 늘어난 18만 4,800대를 판매하며 높은 판매 성장을 보였고, 중국 3인방(니오, 샤오미, 리오트)의 강세 역시 두드러졌다. <https://bit.ly/3atWxEQ>

엔비디아, '드라이브 Sim'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 시험 환경 구축 (테크월드)

엔비디아가 '드라이브 Sim'으로 자율주행차 위한 시험 환경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힘. 유니버셜(Omniverse) 기반의 드라이브 Sim은 확장성·다양성·정확성을 갖춘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을 해결함. <https://bit.ly/3th7sW5>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